

광주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출근길 시민 큰 불편

시민들 출근길 발 묶여 불만 토로
“계속되면 어쩌나” 불안감 내비쳐
지하철 증편 등 비상수송 대책 가동

“앞으로 언제까지 이럴지 걱정되고 또 지각할까 봐 너무 불안해요.”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다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9일 오전 7시께 찾은 광주광역시 서구 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 버스정류장.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버스 배차 간격 증가와 일부 노선 미운행으로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버스 안내 전광판과 스마트폰 앱을 번갈아 확인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평소 종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은 항상 시내버스가 줄을 이어 진입하는 곳이지만 이날은 파업으로 인해 시내버스가 평상시보다 드물게 모습을 나타냈다.

버스를 기다리던 한 시민은 “월요일 아침부터 이게 뭐냐”며 불만을 토로한 뒤 마지못해 택시정류장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대학생 박현주(23)씨는 “학교에 가는 버스가 오지 않아 그냥 택시를 탈지 고민 중이다”며 “지난주 금요일 파업 때 지각해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재개한 9일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서 오늘은 더 일찍 나왔는데도 또 늦을까 걱정된다”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일부 시민들은 기다림 끝에 버스가 도착했으나 만차로 인해 승차할 수가 없어 다음 버스를 기다리기도 했다.

출근길 직장인 이우진(48)씨는 “버스가 기다려도 오지 않아 너무 답답하다. 버스가 와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타 있어 버스에 오르지 못할 정도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류장 한편에는 ‘시내버스 파업 운행 지연 안내’가 부착됐지만, 시민들은 “연제

까지 파업이나”, “시외버스가 더 자주 보인다”는 등 불만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어르신과 학생들의 불편함은 더했다. 백모(80)씨는 “병원에 가야해 아침 일찍 나왔는데 버스가 오지 않아서 큰일이다”며 “어떻게 돌아다니라는 건지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등곳길에 나선 학생들은 휴대폰 통화로 “선생님 저 버스를 못타요”라며 곤란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비슷한 시각 찾은 광주 동구 충장로 버스정류장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일부

버스의 하차 문에 ‘시내버스 파업 관련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지만, 시민들의 짜증섞인 불만들이 쏟아졌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최낙현(26)씨는 “버스 파업으로 인해 출근길이 더 오래 걸렸다”며 “가장 최근한 교통수단이 이렇게 멈춰버리면 시민들은 무슨 죄냐, 피해는 다 보고 책임은 누가 지냐”고 언성을 높였다.

지하철 이용객들도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하철 1호선 금남로4가역 통행로를 지나던 승객들은 벽면에 붙여진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지하철 증편 운행 안내문’을 살펴보며 “파업 상황이 심각한가 보다”, “당분간 버스는 피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광주 시내버스 전체 102개 노선 중 97개 노선에서 차량 887대가 운행 중이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노조 파업에 따라 이날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시는 비노조원 운전기사 등을 투입해 운행률 80%대를 유지하는 한편, 지하철을 12회 증편 운행하고 출퇴근 시간 택시를 집중적으로 배차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시내버스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연봉 8.2% 인상(4호봉 기준 월 34만원),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광주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반면 사측은 운영 적자 등 이유로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상영대중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목적은 안정적인 시민 편의 제공인 만큼 노조는 시내버스 파업을 철회하고 사측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글·사진·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일가족 신고 바다로 돌진 40대... 아내와 공모 정황

광주 북부경찰, 중간 수사 발표
2억원 채무에 노동당국 조사도

생활고와 임금 체불 수사 압박에 시달리던 40대 가정이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채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한 ‘일가족 사망 사건’의 전말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9일 광주 북부경찰은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된 지모(49)씨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작업반장 역할을 했던 지씨는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2억원에 달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3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노동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지씨는 동갑인 아내 김모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2일 전라남도 무안의 한 펜션을 3박 4일 일정(5월30일~6월2일)으로 예약한 부부는 같은달 26일 범행을 구제화했으며, 김씨는 인근 약국에서 처방받은 수면제와 이를 넣은 음료를 구입했다.

‘금호타이어 공장 정상화’ 시민대책위 발족

광주 노동·시민사회단체 참여

광주광역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형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해 시민대책위를 발족했다.

시민대책위는 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등 각 정당, 박근혜·전종덕 의원실도 함께 참여했다.

지씨 가족은 지난달 30일 오후 승용차를 타고 무안의 펜션으로 향했다. 다음날인 31일 저녁 식사 후 목포의 한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영양제’로 속여 먹였다.

이후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지씨는 진도 임회면 진도항으로 향했고,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께 조수석의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뒤 바다로 차량을 돌진했다.

이 사고로 아내와 두 아들은 차량 침수로 숨졌고, 차량에 물이 들어차자 공포를 느꼈던 지씨는 차량 창문을 통해 홀로 탈출했다. 그는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4시간을 머문 뒤 야산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지씨는 이튿날인 2일 오후 한 가계 주인에게 전화를 빌려 형에게 연락, 형의 지인의 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하던 중 같은날 오후 9시9분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범행 후 약 44시간 만이었다.

경찰은 부부 명의로 가입된 보험 내역을 확인했으나, 각각 가입한 건강보험 2건 외에는 특이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씨에게는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와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씨는 1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정승우 기자

“잊지 않겠다”는 약속... 학동 참사 4주기 추모식 엄수

광주 동구 광장서, 유가족 등 참석
깊은 슬픔 속 ‘안전사회’ 조성 다짐

시간은 흘렀지만, 마르지 않는 눈물과 아물지 않은 상처 속에 참사의 기억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있다. 광주 학동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사회 조성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는 9일 오후 4시10분 광주광역시 동구청 앞 광장에서 참사 4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유가족과 강기정 광주시장, 임택 동구청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삼풍백화점 붕괴, 4·16 세월호, 10·29이태원 참사 등 8개 재난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모인 재난참사피해자연대도 함께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들로 구성된 416합창단의 추모공연에 이어 사고 발생 시간인 4시22분에 맞춰 추모 묵념이 엄숙히 진행됐다. 유가족들은 눈을 감은 채 그

날의 아픔을 되새겼고, 일부는 복받치는 슬픔에 연신 눈가를 훔쳤다.

이전의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참사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자, 곳곳에서 흐느낌과 숨죽인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편지를 통해 “어머니가 늘 하시는 ‘숨만 부지런히 쉬면 안 죽고 살아진다’는 말씀이 생각난다”며 “어려운 삶 속에서 버티며 삼남매를 지켜낸 어머니가 그날 숨을 쉬려 얼마나 애쓰셨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그 말처럼 억울함과 슬픔을 안고 서라도 반드시 살아내겠다는 마음으로 숨 쉬고 있다”며 “어머니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이 잊히지 않도록 끝까지 그 숨결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광주를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4년이 흘렀지만 상처는 여

전히 아물지 않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도 그대로다. 추모 공간조차 마련되지 못했고, 사고 당시의 운임 54번 버스도 여전히 최적의 보존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된 참사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중심이 되는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께 유가족협의회는 동구청사 앞에서 지역 정당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원청 업체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는 참사 재발 방지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제4개발구역에서 철거하던 건물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 등을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고 조사 결과, 불법 하도급 구조와 무리한 철거 일정, 관리·감독 부재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윤준명 기자

5·18 비하 발언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 결국 사과

비판 여론 확산에 “대단히 죄송”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전 수영 국가대표 조희연 씨가 자신의 SNS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공개적으로 사죄했다.

조씨는 지난 8일 자신의 SNS 스테드에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반항정신으로 뿔뿔 뿔뿔 폭동!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옴”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일베 아닌가?”,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역사 왜곡”이라는 등의 댓글로 조 씨를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당신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이들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글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씨는 댓글을 통해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선을 넘는 발언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졌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다. 어차피 내 인생에 타격 1도 안 오는데, 시비 걸지 말고 각자 갈 길 가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발언의 파장이 커지면서, 조씨는 9일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향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5·18 당시 민주주의를 외치며 돌아가신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공인으로서 경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9일 오후 3시 기준 해당 게시물에는 140여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조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정유철 기자